

# 제주 4·3 60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평화기념관을 보며

글 · 오승국 osk4843@hanmail.net



4·3평화공원의 핵심시설인 제주4·3평화기념관 전경.

내부에는 4·3관련 사료 뿐만이 아니라 관련 동영상, 기념물 등 4·3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될 것이다



고통의 긴 세월을 건너 60갑자로 돌아온 무자년(戊子年) 사월이다. 눈에 보이는 제주섬의 아름다운 풍광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는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한의 역사가 곳곳에 널려 있다. 이러한 제주 현대사의 비극적 파편들은 곧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고통일 수 있고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극명한 역사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다.

한과 눈물의 세월을 넘어 4·3은 올해 60주년을 맞는다. 반세기 전 아름다운 제주 산야와 해변을 붉게 물들였던 참혹한 양민학살의 역사, 오랜 세월 동안 발설조차 금기시되었던 한과 눈물의 역사, 지금도 정명을 갖지 못한 채 제주4·3의 역사는 한라산 풍광 뒤에 숨어 떠돌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9년 제주도민들은 4·3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4·3진상보고서를 확정했다. 4·3이 발발한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정부가 첫 언급을 한 것이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 4·3이 국가폭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제주4·3의 핵심이란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공간의 미군정기와 이를 계승한 이승만 정권에서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제주 민중들이 무참히 쓰러져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진보, 사회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28일(금) 4·3 60주년을 맞아 개관한 평화공원은 제주자치도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로 다가 오고 있다.

####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 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공원은 제주 시내에서 동쪽에 있는 봉개동 거친오름 기슭에 있다. 4·3평화공원 조성의 시작은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1999년 6월 12일, 대통령이 부지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약속을 기점으로 공론화하기



기념관 내부

시작했다. 이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빠르게 진행되었다.

4·3사건 발발이후 50여 년 동안 해원되지 못한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한다는 목표로 조성되었다.

그동안 600여억 원의 국비 사업으로 2단계에 걸쳐 ● 위령제단 ● 위령탑 ● 추념광장 ● 기반시설 ● 조경공사 ● 4·3 평화기념관 건립 ● 전시시설 ● 상징조형물 등의 시설이 완료되어 역사적인 개원을 했다. 4·3평화공원은 제주4·3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또한 4·3의 역사를 교육하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센터, 역사의 장, 평화의 장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

### 고통의 기억을 평화의 향연으로

2단계 사업완료로 통해 현재까지 조성된 평화공원의 내용을 보면 제주 특유의 화산석으로 건조된 까만색 정문이 눈에 띈다. 정문을 통과하면 적당한 크기의 호수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공간의 중심축 선상에 4·3상징조형물과 위령제단, 위패 봉안실이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특히 공원 가장 위쪽에 있는 위패 봉안실에는 4·3희생자의 위패가 마을별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들어서면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이름만 보아도 4·3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총 12만평 부지, 3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평화공원은 지난 달 28일, 2단계 사업이었던 4·3평화기념관이 개관함으로써 평화공원의 큰 열개가 완성되었다. 또한 기념관의 개관은 공원의 핵심 시설로 자리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념관의 건축물은 설계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4·3의 역사를 담는 그릇의 형태를 차용했다. 지상 3층, 지하 3층의 규모로 구성된 기념관에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낱알이 기록한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자료실, 각종 관련 사무실 등이 있다.

아외에는 각종 편의 시설과 조형물이 배치되어 일상적인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도 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완성된 ‘모녀상’은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토벌대의 총탄에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보는 이들을 슬프게 한다.

최근 제주자치도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당장 시급한 공원과 기념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앞으로 구성되는 ‘4·3평화재단’에 공원 관리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제주4·3의 진실은 한국 과거사청산의 모범

제주4·3의 진실은 그동안 불온하게 여겨온 역사적 진실을 연표위에堂堂하게 기록하는 일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이념의 잣대로 4·3사건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여 가르쳐 왔다.

6차 교과과정 교과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





매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서는 범도민 4·3위령제가 거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위령제 식전 문화행사의 한 장면

다.’로 기록되었으며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제주도에서는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일어났다.’고 단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제주4·3에 대한 문제점은 미군정과 4·3과의 연관성 설명이 없어서 정부수립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잘못 이해 할 수 있으며 4·3의 역사적 실상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가 확정된 제주4·3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반세기 동안 왜곡 표현된 역사 교과서, 각종 교육자료 등에 ‘제주4·3’의 진상이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제주4·3진상보고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국에 책임을 묻는 민간인 희생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담은 정명(正名)이 부여되지 않았다. 물론 분단 상황이 4·3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다양한 민·관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7대 건의

사항을 현실화하는 작업과 4·3의 역사적 진실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3 역사를 보편화, 세계화 하는 작업도 전 도민이 나서야 할 문제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이 법을 통해 구성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와 4·3사건처리지원단, 실무위원회와 4·3사업소 그리고 4·3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을 펼쳐왔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4·3의 진정한 해원을 열망하는 도민과 유족의 뜻을 겸허히 헤아리는 실질적인 정책과 실천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 4·3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4·3해결의 기본 틀 완성 ▷ 4·3평화재단 설립(국가의 지원) ▷ 유가족에 대한 특례혜택 부여 ▷ 평화공원의 성공적인 조성 ▷ 집단 암매장지 발굴과 유적지 보존 ▷ 각종 교육 자료에 4·3역사 반영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기영 소설 『순이삼촌』의 무대가 되었던 북촌리에 세워진 문학기념 조형물. 쓰러진 빗돌들은 4·3당시 억울하게 죽어간 제주도민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며 빗돌에는 소설의 주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

## 60년의 기억, 60년의 희망

4·3은 60년이 흐른 지금에도 기념해야 할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현재의 역사다.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이 진실의 노를 저어 평화의 바다로 나아가 새로운 희망의 역사로 승화되는 중차대한 전환기가 바로 4·3 60주년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안고 4·3 60주년을 맞아 도내·외에서 행해지는 4·3 행사의 추진 주체가 될 ‘4·3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4·3이 박제화 되어 형식적인 기념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4·3이 우리 생활 속의 현실임을 강조하고 감성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4·3이 6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4·3이 품어야 할 중요 과제가 이미 당대의 체험세대,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진실이 어떻게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히 3세대는 2세대와 달리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한 단계 더 떨어져 있으므로 자칫 망각의 세대가 될 수 있다. 4·3 60주년, 3세대가 올바르게 역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4·3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민*

글 · 오승국 | 제주4·3연구소 상임이사  
사진자료 4·3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